



**백형석 임실시장, 심민 군수와 환담**

임실군은 지난 19일 새마을부 임실백형석 신임 임실경찰서장이 임실군청을 방문 심민 임실군수와 환담을 갖고, 지역 치안 안정과 주민 안전을 위한 깊이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실군과 임실경찰서는 주민의 삶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지역행사 안전관리 △교통질서 확립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 △재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중영 기자



**리뉴어스 대표, 김제시에 고향사랑 기부**

김제시는 리뉴어스(주) 정원의 본부장이 김제시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리뉴어스(주)는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를 둔 환경 전문기업이다. 현재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평소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천해 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꿈드래장애인지원회, 화재 피해 가구에 성금 기탁**

김제시는 지난 19일 (사)꿈드래장애인지원회(회장 하태복)가 관내 화재 발생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위기가구를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신속한 주택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농가 일손돕기 나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는 지난 19일 성산면 산골리 소재 친환경 양파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먹거리정책과 직원 10여 명은 무더위 속에서도 양파 수확과 운반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비록 서늘 습하지만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휴식 시간마저 아껴가며 적극적으로 일손을 보탰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 덕과면, 감자 수확·나눔 활동 진행**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관내 유 휴지를 활용한 감자 수확 및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덕과면 새 마을지도자 회원들과 면 직원들이 유휴지를 발굴해 공동으로 경작지를 조성했으며, 이날 회원들과 면 직원들은 감자 30상자(10kg 기준)를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작은 친절, 시민의 마음 움직인다**

**420년 노선 시내버스 전일여객 최명희 기사**

최근 일부 시내버스 운전원의 불친절한 운행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여객 소속 노선번호 420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여성 운전원 최명희 기사의 따뜻한 배려가 시민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주시 삼천동에 거주하는 박만도 씨는 지난 18일 오전에 본보에 전화를 걸어 "친절한 시내버스 기사를 꼭 칭찬하고 싶다"며 미담을 전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중인리에서 삼례 방면으로 운행하는 420년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개나리아파트 인근 정류장에서 한 고령의 할머니가 버스를 향해 급히 뛰어오고 있었는데, 최명희 기사는 출발을 서두르지 않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최 기사는 환한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라며 할머니를 맞이했다.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박 씨는 "요즘은 버스를 향해 뛰어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출발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기에 최 기사님의 친절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일부러 기사님께 다가와 친절하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기사님은 다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답하셨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사들과는 분명히 달랐다"고 전했다.

박 씨는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잠시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작은 배려가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다"며 "이런 기사님들이 많아진다면 대중교통이



용이 훨씬 즐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밤이 되어 매일 도심을 누비는 1천여 명이 넘는 시내버스 운전원들, 그 가운데 최명희 기사의 작은 친절은 삭막한 일상 속에서 이웃의 온정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감동으로 남았다.

누군가에게는 잠시 기다려준 몇 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배려였다. 친절은 결코 큰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제보한 박 씨는 "여성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큰 차를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차량 관리도 깨끗하게 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유지하는 등 모범적 운전원으로 판단되어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다른 시내버스 운전원들도 최명희 운전원처럼 친절할 운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김강주 국립군산대 총장, 대학 발전기금 기부**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8일 김강주 총장이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개교 80주년 기념 기부 릴레이 캠페인'의 첫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교 8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모금 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발전기금은 학생 장학사업, 교육환경 개선 연구 역량 강화 등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김 총장의 기부로 시작으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동문, 지역 기업체 및 단체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군산대 김강주 총장은 "개교 8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이 대학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학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여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학과(부) 홈커밍데이, 후원의 밤 행사 등 다양한 모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 봉어빵아저씨' 김남수 대표, '나눔리더' 가입**

**꾸준한 나눔 실천 귀감**

익산의 봉어빵아저씨 김남수 대표가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익산시는 지난 1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과 함께 김남수 대표의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을 축하하며 인증패를 전달했다. '나눔리더'는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로,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클럽이다.

김 대표는 원광대학교 후문 맞은편에서 봉어빵 가게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매일 1만 원씩 모아 매년 365만 원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이어온 꾸준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남수 대표는 "시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오랜 기간 나눔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변함없는 기부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김남수 대표님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나눔리더 가입이 더 많은 시민의 나눔 참여로 이어져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남원여성새일하기센터는 지난 19일, 시 평생학습관 별관 2층에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및 기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협약은 여성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성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외 42개 관내 기업체가 참석해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해 기업체 간 우수사례 공유 및 여성 고용 안정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여성새일하기센터(063-620-5280~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협약은 여성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향교동, 리모컨 LED 전등 무상설치 추진**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와 한전MCS 남원지점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컨 LED전등 무상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양측 협약에 따른 한전MCS 남원지점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안전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전MCS 남원지점은 향교동행정복지센터가 추천한 100가구를 대상으로 리모컨 LED전등을 무상설치 추진중이며, 설치 후에도 정기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전등은 무선리모컨 방식으로 조작이 간편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야간 이동 중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손쉽게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행안면 지사협 등, 재능기부제2차 나눔 추진**

부안군 행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은진, 민간위원장 김홍우)에서는 지난 18일 전북백이커리고등학교와 손을 잡고 재능기부 협약을 통해 20가구에 2차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1차 기부와 안부확인 활동을 하고, 2차 나눔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빵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과 안부 재능기부를 추진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생활실태를 세심하게 살펴며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한 어르신은 "맛있는 빵도 고맙지만 젊은 학생들이 나를 생각해 줬다는 것이 더 기쁘다"며 "직접 찾아와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순창소방서, 올 상반기 119 HERO 구급대 표창 수여**

순창소방서는 지난 19일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119 HERO 구급대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우수 구급대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9 HERO 구급대'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자립순환회복(ROSC)을 이끌어낸 구급대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로, 구급활동의 가치를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표창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심정지 환자 소생에 크게 기여한 구급대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순창119안전센터 소속 한상구 소방장, 나준 소방장, 정승원 소방사 등 총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종 응급현장에서 신속한 판단과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9 HERO 구급대'로 선발됐다. /순창=이왕희 기자



**장수소방서, 공평마을서 안전복지 나눔의 날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함동규)는 지난 17일 계남면 공평마을 일대에서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은 소방 서비스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안전 복지를 제공하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수소방서 대원들은 공평마을 가구를 방문해 △소화기 점검 및 노후 소화기 교체 △단단벽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주책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과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수칙 등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곽환희 기자